중국불교 우호관계 중요하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며칠 전, 인터넷에 이런 뉴스 제목이 올라왔다 '스님들은 좋으시겠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솔깃해서 클릭하니 재미난 내용이었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올해 1~9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증가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1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좀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어떤 여행'에 주목하는지를 조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중국 관광객 트랜드를 조사했더니, 한국 여행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불교문화 체험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평창 월정사에 다녀오다', 혹은 '사찰이 편안하다' 등 언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가 '사찰'이었다.

이 기사를 보고, 필자는 충분히 공감했다. 동아시아 불교국가 가운데 중국인은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불교에 대한 마인드가 깊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하는 종교는 불교·도교·이슬람교·개신교·천주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는 도교가 아니라 불교이며,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도교는 중국의 자생종교요, 중국인들의 민속신앙 속에 자리 잡은 종교이다.

하지만 도교는 중국인들에게 불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 한 지역에서 도교사찰이 불교사찰에 비해 매우 열세하다. 중국 역사학자이며, 세계적인 문화평론가인 위치우이(余秋雨, 1946~)

訪韓 중국인 '사찰' 검색 최다
中, 타종교보다 불교에 우호적
중국불교와 상생 도모 필요해

는 불교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치 모세혈관이 피부 끝까지 뻗어 있는 것처럼 불교의 자취가 곳곳에 자리하여 그 어떤 문화보다 훨씬 더 크게 활약하고, 훨씬 더 유효했다."

그러면서 위치우위는 어린 시절, 마을에 도교의 도사는 병을 쫓거나 장례식 등에 참여하는 정도였는데, 승려는 중생에 도움을 주거나 '수행자'라는 이미지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래(A.D 67년) 유교와 도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도교에서는 불교의례를 모방하거나 불경에 비춰 도교 경전을 만들었다.

운남성 대리(大理)에 숭성사(崇聖寺)가 있는데, 이곳의 3탑(三塔) 높이는 세계 최고다. 중심탑 높이가 69.13m인데, 일반 아파트로 치면 20층 정도이다. 숭성사와 3탑 불사비가 2003년에 한국돈으로 환산해 236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독자들이 '중국불교가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종교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공산당이 종교 가운데 가장 관용을 베푸는 곳이 불교이며, 불사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중국 문화유산 가운데 70%가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불교'라는 코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대·중세에 중국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승려는 중국에 유학하거나 법맥을 받아왔다. 현 조계종은 옛 중국선사들과의 법맥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중국사찰 순례 중 정치승보다 올곧고 신심 깊은 승려들을 많이 만났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 중국불교와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예전의 불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장애인과 AI, 그리고 불교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올해는 AI(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으로 1년을 보낸 것 같다. 최근 한 전자연구원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지·정서·물리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로봇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AI시대를 맞아 '장애인을 위한 AI'의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음이 새삼 반가워진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AI기술은 장애유무를 떠나 일상생활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쓰임이 보편화 되어진 AI기술이 장애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AI의 발전은 모든 사회영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디자인된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은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가고, 장애인에게 있어 기술은 개인적 편리함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까지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었다.

이미 보편화된 PC와 스마트폰처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을 넘어 시각, 청각, 인지, 정서, 학습, 언어 등의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

'장애인을 위한 AI' 개발 활성화
장애인 삶의 질 높여주는 매개체
불교도 AI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는 장애인 보조공학의 발전도 일부다.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구를 이용한 사회적 상호소통의 노력이라던지, 인공와우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이동성 보조 등이 좋은 예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수동휠체어의 발전한 형태인 전동휠체어, 보청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앱까지 장애인에게 기술은 장애 정도 혹은 장애 여부까지 바꿀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의 AI기술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위한 AI는 분야는 시각, 청각, 뇌병변과 지체장애 쪽은 생활 보조에 방점이 있고 학습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 쪽은 진단과 교육으로 발전의 방점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AI는 이동성 보조, 의사소통 기회와 능력 향상, 독립성 향상,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성 확대와 종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은 불교계에서도 불교와 AI의 접목이 이목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불교 체험 확대, MZ세대 포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상과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 불교의 다양한 정보 접근이 AI기술을 통해 용이해져 불교의 수행과 신행 활동, 젊은 세대 포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장애인과 AI, 불교와 AI가 서로 동떨어진 상관관계인 것 같지만 이 환경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장애인의 수행에 더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社 說

사찰 이모지, 한국불교가 만들자

현대불교신문은 1509호부터 1511호까지 연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락돼 있는 '사찰 이모지'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시작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사의 아이폰에 탑재된 이모지에 '사찰'만이 없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하며 '이모지'를 제작·배급 보급하는 단체가 미국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 비영리단체 '유니코드 협회(Unicode Consortium)'로 이 협회에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모지를 제공받고 있다. 이유는 이모지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코드'를 설정

전 세계 온라인 인구 92%, 이모지 활용해 의사소통
사찰, 베삭데이 이모지 없어…타종교 이모지 활성화
유니코드協 매년 4~8월 공모, 한국불교도 참여하자

해야 하는데 유니코드 협회가 이모지 표준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표준코드는 전 세계 기업으로 발상되고, 코드를 받은 기업들은 각 사에 맞는 이모지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직접 이모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이 '표준코드' 때문이다.

결국 사찰 이모지를 담은 '표준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였던 것이다. 이 역시 확인 결과 유니코드 협회는 매년 4~8월에 원활한 온라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신규 이모지를 제작·등록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실제 2017년 힌두교 신자 2명은 "교회와 모스크 등은 있는데, 힌두교를 대표하는 이모지가 없다"면서 이모지 공모에 참여했고, 힌두교 사원 검색 빈도가 유대교 회당과 이슬람 메카보다 높음을 증명해 2019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국의 불자나 국민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모지가 많이 활용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유니코드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92%가 의사소통에서 이모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모지는 단순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비스 기능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 커뮤니케이션 도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사실상 공공재라는 의미도 가진다.

실제, 세계인이 기념하는 종교 기념일인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힌두교 축제 등불을 나타내는 '디왈리' 등이 이모지가 제작됐지만,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 '베삭(Vesak)데이'는 없다. 다시 말해, 언어를 넘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가 없어 부처님오신날을 세계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불교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한국불교가 이모지 제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말이 있다. 사찰과 불교 이모지가 누락됐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 '사찰 이모지' 제작에 범불교적인 관심을 바란다.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2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